

## 스포츠

# 홀로 다른 곳을 보며 우리학교를 책임지는 안방마님

야구부 이정현 선수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 '경희'라는 이름을 빛내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 14개 운동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태권도, 배드민턴, 체조, 양궁,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필드하키, 골프, 럭비)의 힘이 대단하다. 우리 신문은 경희를 빛내기 위해 대학이라는 무대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우리학교 14개 운동부 선수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우리학교 야구부를 이끄는 주장, 이정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다.

봄과 함께 야구의 계절이 왔다. 24일,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동시에 3월 31일부터 전국대학야구 주말리그(주말리그)의 막이 올랐다. 우리학교 야구부는 아쉬웠던 지난 몇 해의 성적을 뒤로하고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31명의 선수들을 이끄는 주장, 이정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를 만나봤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이 선수는 단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이 테려간 야구장에서 야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 반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후, 선수가 되었다. “형들이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라며 “그걸 입어보고 싶어서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평범한 이유였다.

이 선수의 포지션은 포수다.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투수의 공 배합을 정해 컨트롤하고, 크게는 야수들을 아우르는 역할까지 한다. 경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살립을 하기 때문에 ‘안방마님’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선수는 “작년부터 포수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있다”며 “내가 정하는 볼 배합으로 상대팀 타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력이다”고 했다.

이전까지 포수 자리에 앉으면 긴장이 많이 됐다는 이 선수는 “플레이가 잘 안 풀리면 속으로 화가 많이 나고 성적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항상 마인드 컨트롤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다. 이 선수는 이를 훈련뿐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코치로부터 호흡법을 배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다고 한다. “이런 단점을 훈련으로 커버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며 “목표는 언제나 1등이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정현 선수의 목표는 언제나 1등이다.

(사진=본인제공)

## 마인드 컨트롤 중요

## 책 읽거나 호흡법 배우기도

이 선수는 “타격이 좋은 흥의대와 인하대를 경계하고 있다”며 “특히 흥의대는 매년 리그마다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이다”고 했다. 하지만 “경계는 되지만 질 것 같지는 않다”며 “목표는 언제나 1등이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작년 주말리그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제가 주전 포수였는데 손목 부상으로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다른 포수 포지션의 선수도 수술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외야수를 보던 노민석(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가 포수를 임시로 보다 보니 제 실력이 나오지 못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유독 이상하게 작년에 선수들이 주눅 들어 있다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이번 시즌에는 이런 점을 잡아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의 부상은 이 선수 개인에게도 힘든 기억이었다. “부상으로 목표하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표팀에 발탁되지 못했다”며 “대표팀 발탁을 두고 경쟁했던 경성대의 고성민 선수가 대회를 뛰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실력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부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였던 것 같다.”

대해 설명했다.

대학 진학을 선택한 이 선수와 달리 고교 동기인 최민창(LG 트윈스) 선수, 최승민(상무 야구단) 선수는 프로에서 활약하고 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포수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선택했다”며 “이르게 프로에 가서 방출당하는 것보다는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야구를 좀 더 배우고 싶었다”고 했다. “경희대는 저를 생각이나 실력적으로나 많이 성장을 하게 해준 학교다”며 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우선 대학에 진학한 것이 너무 좋다”며 “선수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공부로 경희대 같이 좋은 학교에 올 수 있었겠느냐 웃으며 이야기 한다”고 했다. 졸업 이후 프로 입단만 생각하고 있다는 이 선수는 “몇십 년을 야구만 하다 보니 야구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희대는 저를 생각이나 실력적으로나 많이 성장을 하게 해준 학교. 몇십 년을 야구만 하다 보니 야구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 적이 없다”

“

이번 시즌 아쉽지만  
다음 시즌 도약 약속해

팀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이 선수는 세 명의 툴 모델을 닮고 싶다고 했다. 박경완(SK 와이번스) 코치에게서는 주장으로서 필요한 리딩과 리더십을, 강민호(삼성 라이온즈) 선수나 양의지(두산 베어스) 선수에게서는 포수로서 필요한 능력을 배운다고 했다. “두 선수가 도루를 저지하는 영상을 찾아보면서 자신과 비교해본다”는 이 선수에게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이 선수는 포수로서도, 주장으로서도 완벽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장은 시즌이 끝난 10월, 11월에 선출되어 다음 한 시즌을 이끌어간다. 하지만 이 선수는 시즌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주장 을 맡았다. “작년에 주장을 맡았던 선배가 부담감 때문에 성적이 부진했다”며 “감독님께서 저한테 주장을 제안하셨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 주장을 맡은 경험이 있어서 해보겠다고 했다”며 주장을 이른 시기에 맡게 된 경위를 소개했다.

이 선수는 주장으로서 항상 선수들에게

‘기본’을 요구한다. “저는 실력보다는 인성과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 약속을 꼭 지키고 훈련할 때 너무 장난 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후배들을 터치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런 점들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전달 한다”며 본인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에

“감독님께서 투수 출신이셔서 그런지 포수하느라 고생한다고 1학년 때부터 저를 너무 많이 챙겨 주셨다”며 “프로에 간다면 감독님께 꼭 많이 보답하고 싶다”며 김도완 야구부 감독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동료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다 같이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좋은 성적으로 리그 마무리

하고 프로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테니 많

은 응원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헬멧, 마스크, 프로텍터, 무릎보호대까지

한여름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유니폼

이 땀범벅이 되는 포지션이 포수다. 뜨겁게

달아오른 포수 마스크 안에서 냉철한 눈빛

으로 야수들을 지휘하며 우리학교의 품질

레이트를 든든히 지키는 안방마님, 이 선수

가 펼쳐나갈 앞날을 응원한다.

## 농구부 3연승으로 공동 1위, 배구부 2연승, 축구부도 개막전 승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시작의 달 3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많은 선수들이 종횡무진 활약했다.

지난달 22일, 선승관에서의 첫 공식경기가 열렸다. 2018 KUSF U-리그 대학농구 첫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78-66으로 한양 대를 완파했다. 센터 박찬호(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우리학교 특유의 빠른 농구로 이를 극복했다.

이 기세를 이어 지난달 26일 리그 세 번째 경기에서 단국대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3쿼터가 끝날 때 까지 단 한 번도 리드를 잡지 못했던 우리학교는 4쿼터 퀸성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의 10득점 활약에 힘입어 연장전에서 역전 승리했다. 이 날 경기에서 22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한 김준환(스포츠지도학 2017) 선수와 26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한 박세원(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둔 농구부는 고려대와 함께 리그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3일, 조



선대와 네 번째 경기를 갖는다.

한편 배구부도 시작이 좋았다. 몇 년간 흄경기를 치를 수 없었던 우리학교 배구부는 선승관 개관으로 흄 경기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4일 우리학교 배구부는 경남과학기술대를 1세트부터 강하게 압박했다. 강병모(스포츠지도학 2015) 주장의 활약과 작년 시즌 블로킹 1위를 달성한 알렉스(체육학 2014) 선수의 장기기 빛났다. 여기에 여려 선수의 서브에이스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다. 경기 후 주장 강병모 선수는 “선승관에서 경기를 하니 관중도 많고 더욱 신나서 플레이할 수 있었다”며 선승관 첫 경기 소감을 전했다.

배구부는 지난달 30일, 한양대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했다. 주장 강병모 선수의 20득점과 김인균(스포츠지도학 2018) 선수의 14득점이 승리를 견인했다. 알렉스 선수는 블로킹 6개 포함 18득점으로 대학배구 최고 블로커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배구부 김찬호 감독은 “4세트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고무적이다”며 선수

들을 칭찬했다. 배구부는 오는 7일, 선승관에서 조선대를 상대로 3연승을 노린다.

축구부는 지난달 23일, 용인 축구센터에서 열린 2018 U-리그 개막전에서 KC대를 2-0의 스코어로 꺾었다. 두 골 모두 전반전에 손경현(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가 각각 기록했다. 오는 6일, 축구부는 숭실대를 상대로 2연승을 노린다.

2018 청주 직지컵 핸드볼대회에 나선 우리학교 핸드볼부는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첫 경기였던 충청남도 체육회와의 경기를 23-21로 어렵게 패배하고,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30-22로 패배했다. 지난달 24일, 원광대를 상대로 한 세 번째 경기에서 25-20으로 승리한 핸드볼부는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준계력비리그를 진행 중인 럭비부는 지난달 25일, 고려대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으나 29일 연세대에 패배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양궁부 강채영(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위를 기록하며 8명인 양궁 국가대표의 일원이 됐다.